전남·광주 에너지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잇다
GIST, '2026 G.E.T. & Re:Born' 기술교류회 개최

- 13일 GIST 오룡관서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기업과 투자자,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 참석
-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 투자환경 소개 및 에너지 분야 기업·연구기관 등 10개 기관 발표..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방안 논의



▲ 11월 13일(금) GIST 오룡관에서 열린 '2026 G.E.T. & Re:Born' 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에서 이광희 에너지밸리기술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11월 13일(금) GIST 오룡관에서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기업의 기술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2026 G.E.T. & Re:Born'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에너지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사업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기업과 투자자, 지원기관이 만나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 ▲GIST ▲한국전력공사 ▲1.5도씨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광주

테크노파크 ▲GIST 앵커사업단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 기업과 투자자,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술교류회에서는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환경 소개에 이어 **에너지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10개 기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광주경제자유구역에서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는 경제자유구역의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스마트 에너지 산업지구를 비롯한 주요 산업지구의 입지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을 안내했다.



▲ '2026 G.E.T. & Re:Born' 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에서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 박가혜 팀장이 지역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진 **에너지 유망기업 기업설명회(Investor Relations, IR) 세션**에서는 **기업 7곳과 연구기관 2곳, 대학 1곳**이 참여해 각 기관의 주요 기술과 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네이트로닉스(정기영 대표) ▲㈜레플러스(유병천 대표) ▲㈜유에너지(최태원 대표이사) ▲세고스(이진식 상무) ▲엔파워(김영일 대표) ▲㈜대명에스코(박인규 대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황유민 선임) ▲한국광기술원(전준영 선임) ▲국립순천대

학교(최근호 조교수) ▲에너지플래닛(정호영 대표)이 참여했다.



▲ '2026 G.E.T. & Re:Born' 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에서 ㈜네이트로닉스 정기영 대표가 자사의 기술과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GIST 앵커사업단도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앵커사업단은 주민들이 에너지 문제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해결 방안을 함께 찾도록 지원하는 '도심캠퍼스 리빙랩'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에너지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계자, 연구자 등이 참석한 '전남광주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도 별도로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5명에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표창패가 수여**됐다.

이 가운데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강홍규 부소장**이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강 부소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기획과 기술교류, 기업 지원, 미래세대 인재 양성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기술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이 되고 **탄소중립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와 산업, 사람을 연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어 열린 '전남광주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에서 (오른쪽)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강홍규 부소장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표창패를 받고 있다.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이광희 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지역 유망 에너지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투자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투자자, 지원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에너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IST는 이번 기술교류회를 계기로 참여 기업에 대한 후속 의견 수렴과 투자 연계를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밸리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 에너지 기업과의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과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